



서구의 제국주의적 관점 비판하는 ‘오리엔탈리즘 다시 읽기’

우리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거울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 극복 연구 줄이어

《옥시덴탈리즘》의 저자 샤오메이 천은 옥시덴탈리즘이라는 역설적이고 혁신적인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오리엔탈리즘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 샤오메이 천은 “동양에 의해 구성되고, 오인·오해·오독된 날조된 서양”이라는 현상을 통해 동양의 능동성을 복구함으로써 동서관계의 쌍방향성과 상호 문화적·다문화적 관계의 복잡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예컨대 저자는 마오쩌둥 이후 중국 지식인들이 극단적인 ‘친서양, 반전통’의 태도를 취한 이유가 중국 내 지배체제의 억압에 맞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해방을 이루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오리엔탈리즘을 얘기하려면, ‘에드워드 사이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1978년에 발간된 명저 《오리엔탈리즘》에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에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유럽과 오리엔트라는 두 개의 상반된 개념은 유럽의 학자들, 특히 유럽제국주의 학자들이 유럽의 강력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비유럽을 정복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차이를 우열로 왜곡시키는 서구의 제국주의적 관점을 비판했다. 이 책에서 사이드는 자화자찬의 우물안에 개구리식의 서양의 학문담론을 코페르니쿠스적인 문화 해석방법으로 일침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새로운 방법론의 파장이 지금 우리에게 새롭고 다양한 해석



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문의 제국주의-오리엔탈리즘과 중국사》(산해)에서 저자 폴 A.코헨은 “역사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때로 과거의 사실 그 자체를 역사라고 생각하나, 역사학자는 역사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코헨은 중국의 근현

대사를 바라보는 미국 역사학계의 시각을 비판하면서, 미국학자들의 중국사 연구에 담겨 있는 오리엔탈리즘을 진지하게 해부하고 중국 자신에 입각한 새로운 연구방법론과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하얀 가면의 제국 : 오리엔탈리즘 서구 중심의 역사를 넘어》(한겨레신문사)에서 저자 박노자는 ‘후세인은 정말 추방되어야 할 이 시대의 사탄인가? 미국과 유럽 사회는 정말 우리의 전범(戰犯)인가 미래인가? 북한은 정말 유교적 왕국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당신들의 대한민국》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근대성을 질타했던 박노자는 오리엔탈리즘 혹은 서구중심주의라는 화두를 가져와 서구열강들의 부도덕과 우리 안에 내재한 오리엔탈리즘을 해부하고 있다. 저자는 소수자와 피지배자를 배제하고 타자화시키는 그들만의 세계와 맞서 타자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평등하고 객관적인 세계보아야말로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6월에 출간된 《에드워드 사이드 다시읽기》(책세상)에서 사이드에게서 직접 배운 서울대 김성곤 교수를 비롯해 숙명여대 김상률 교수, 충남대 오길영 교수 등 11명의 학자들은 ‘서구가 그동안 어떻게 동양을 교화하고 문

명화하며 지배해야 할 타자로 취급했는지 폭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소개된 배경은 1984년 서울대 김성곤 교수가 문학기간지 <외국문학> 여름호에 사이드의 초기저작인 《시작: 의도와 방법》과 1987년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글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에드워드 사이드 다시 읽기》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사이드 이해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아직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일본 식민지배 잔재인 패배주의적인 역사관이나 민족관 역시 일종의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이며, 한국 사회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나 연변 동포, 북한 주민을 대하는 방식에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일컬을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미국 중심의 신제국 질서에 대응하는 비판적 지식인의 좌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오리엔탈리즘의 새로운 신화들》(고즈윈)에서 저자 성일권 정치학박사는 “사이드가 동양을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해 서구가 만들어낸 편견과

왜곡의 허상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불렀다면, 한국의 보수세력이 한국적 오리엔탈리즘으로 내재화하고 이상화한 허구적 현실을 ‘복제 오리엔탈리즘 이다’라고 명명한다. 또한 저자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의 글쓰기에서 원용한 미셸푸코의 ‘언설’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 담론 권력을 발휘하는 ‘미디어 지식인’들의 말과 글을 텍스트로 삼아 그들의 왜곡된 잣대와 시각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미국과 한국의 오리엔탈리스트들은 자신들만이 인권과 자유를 말할 자격이 있는 이성의 소유자들이며, 만약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그들은 영원히 배제해야 할 광인이며 이단”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해방 60주년을 맞이한다. 한반도의 오늘은 그야말로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 담론의 집합소가 되었다. 최근에 출간되는 오리엔탈리즘 관련한 저서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한민**

취재 정윤희 기자

서평

《오리엔탈리즘의 새로운 신화들》

우리 사회 담론권력 집단의 ‘복제 오리엔탈리즘’ 비판

성일권 지음 | 고즈윈 | 224쪽 | 값 11,800원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사회를 거대한 기억상실증에 빠뜨리고 있는 담론권력과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오리엔탈리즘적 신화와 음모를 파헤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담론의 헤게모니를 휘두르는 지식인들이 왜 그토록 인권과 색깔론을 자주 제기하는가를 밝히고자 했다.

파리3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석사, 파리8대학에서 정치학 예비박사를 마친 그는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자가 한국의 보수세력이 한국적 오리엔탈리즘으로 내재화하고 이상화한 허구적 현실을 ‘복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명명한다는 점은 생각해 볼만 하다.

성일권 박사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는 에드워드 사이드 외의 인연기도 관련된다. 사이드는 2001년 9·11사건을 전후해 이집트 카이로의 알 아흐람(Ahram)지와 미국의 <매거진>에 미국의 이슬람 마녀사냥을 비판한 글을 기고하고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그의 글을 접한 저자는 ‘헌팅턴류’ 지식인들과 다른 시각에

충격을 받았다. 저자는 사이드와 몇 차례 서한을 주고받은 끝에, 2001년 11월 <도전받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편역해 출간하기도 했다.

저자는 미국 중심의 새로운 오리엔탈리즘 재구성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특정 지역 중심의 지리적 기준보다는 오히려 ‘선과 악’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을 부추기는 보수적 지식인들이 뉴라이트라는 정치세력으로, 논객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종교인이나 대학교수라는 이름으로 전방위적 활동을 하고 있는 오리엔탈리스트의 텍스트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그렇다면, 오리엔탈리즘의 신화를 깨뜨리기 위한 저자의 발상은 무엇인가. 해답은 ‘다음의 인정’이라고 제안한다. ‘이기심의 자유주의와 이타심의 민주주의가 초화를 이뤄 자유민주주의가 성립되려면 변증법적 융합이 필요한데, 그 매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다.

